

각종 쓰레기 재활용·새활용 추진 자원순환 ‘총력’

17개 환경 유관단체 연대 ‘목포 프리하당’

목포시민과 17개 환경유관 단체가 조직한 프리하당(사진)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프리하당은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시민장터, 순환이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기부 또는 체험하는 환경장터, 세제를 가져온 용기에 담아 가는 쓰레기 없는 장터, 새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로컬장터 등을 운영하며 자원순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자원순환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 강화와 거점 프로그램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원순환 선도 목포 프리하당

목포시 호남동 129 공영사무실,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를 벌이며 회의 중인 사람들이 눈에 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깨끗한 성인·아동의류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쓰인 갈색 상자와 멸균팩과 살균팩 등이 한 가득 담긴 채 ‘잡화순환박스’라고 쓰여 있는 상자가 놓여 있다.

3~4명의 프리하당 활동가들이 상자에 담겨 있는 의류와 멸균팩·살균팩들을 종류별로 분류하느라 분주하다.

프리하당은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과 새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박신희 프리하당 활동가 대표는 “프리하당은 2021년 9월 탄소중립을 위한 새활용 네트워크 (사)상생나무 모임에서 시작된다. 목포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자원순환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조직됐다”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근절하는 자유로운 자원순환 목포 만들기’라는 의미를 담아 ‘프리하당’이라는 조직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11월 기준 프리하당은 (재)아름다운가게 목포하당점, (사)상생나무, (사)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7개의 환경단체, 사회적기업등이 연대·협업해 운영되고 있다.

프리하당에서는 △프리마켓 △시민순환기증박스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지구 살림, 쓰레기 없는, 친환경 장터 등 주제로 연 2회 봄·가을 계절별 프리마켓이 운영된다.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마

쓰레기없는 장터 등 운영 새활용제품 판매 등 유도 전남여성가족재단과 협업 “시민동참 방안 모색해야”

켓 현장에서 공유·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3일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프리하당이 주최하고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목포시가 후원한 세계 환경의 날 맞이 지구살림 새활용장터 행사가 목포 평화광장 주무대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지구살림시민장터, 자원순환 캠페인, 환경 체험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 프리마켓 운영 등이 운영됐으며 13개 친환경단체, 친환경셀러 19팀, 시민셀러 20팀이 참여했다.

6월에 이어 지난달 24일 목포 하당 사랑의광장에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시민장터, 순환이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기부 또는 체험하는 환경장터, 세제를 가져온 용기에 담아 가는 쓰레기 없는 장터, 새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로컬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순환기증박스는 목포 관내 용해동·유달동·부주동 등 3개동에 자원순환 박스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박스에 사용하지 않는 의류, 텀블러 등을 기부받아 장바구니, 가구 커버 등으로 새활용되고 있다. 프리하당은 프리마켓과 시민순환기증박스 운영 외에도 환경정화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올해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21일 고하도 해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치며 월 1회 이상 목포 관내 해변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에는 목포YMCA와 함께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프리하당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 새활용·자원순환 체험을 독려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500명의 목포시민이 자원순환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자원순환 실천 유도 초점

프리하당이 프리마켓과 시민순환기증박스,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



목포 프리하당은 환경관련 특정일에 맞춰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목포 프리하당 제공



목포 프리하당 활동가들.

목포 프리하당 제공

하는 이유는 자원순환재활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박 대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원을 무시코 버리면 그대로 폐기물이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고스란히 버려질 물품·자원들이 프리마켓 참여 등을 통해 재활용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리하당은 월1회 17개 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시민 대상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계획한다.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나눔 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함이다.

●시민 동참률 향상 운영 확대를

프리하당은 시민들의 자원순환동참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신희 프리하당 활동가 대표는 “목포시가 주최하는 행사·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분리수거·실천 행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동참률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승희 녹색소비자연대소장은 “프리마켓, 시민순환기증박스 등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동참이 이뤄질 수 있는 기틀



목포 프리하당은 17개 환경단체, 사회적기업등과 연대해 프리마켓, 시민순환기증박스 등을 운영했다. 목포 프리하당 제공

이 마련된 셈이다”며 “시민 참여로 자원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는 SNS홍보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체감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거점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목포시의 행정 구역은 23개 행정동과 64개의 법정동으로 나뉜다”며 “시민순환기증박스의 경우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동인구,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환경 현장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21세기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전은 고품질의 위생적인 물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예측치 못한 수도사고 등으로 먹는 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극한 가뭄과 제한급수 시행 등 물 관련 리스크를 몸소 겪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러한 물 재해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대책을 간절히 바랬을 것.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물안전 대책 사업과 현장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급년까지 국고 583억 원을 지원하며 도시민 식수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노후화된 상수관과 정수장 개량 사업 등 현대화 사업을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수장은 전체 124개소 중 76개소(61%)이고 관로는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전남지역 유수율은 72%로 전국 유수율(8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2개 지자체에 464억 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관을 개선중에 있으며 정수장은

8개 지자체에 326억 원을 투입하여 개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된 수돗물 유충 발생 대비 관내 정수장(113개소) 위생관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수장 유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수지내 여과망, 관로상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흑수, 탁수, 유충 발생 등과 같은 지역내 수도 사고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여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물 관련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 상호 협력 플랫폼이 구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력 플랫폼과 더불어, 상수도 안전 관리를 강화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상수도 공급 전 과정의 실시간 원격 관리가 가능한 AI·ICT기반 국가 상수도 전 과정 스마트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실시간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 수압감시 등 전 과정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각 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골자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인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은 △물이용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 물안전 체계구축, △물환경 건강성 회복 △유역민 참여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물가치제고 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5대 추진 분야 전략을 제시하고 9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역의 물관리 최우선 기관으로서, 금번 종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적기에 수립, 국가적 책무를 다할 방침이다. 예상치 못한 물 관련 리스크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아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안전한 먹는 물 공급·가치 공유